

고환율·오천피에도 굳건… 서학개미, 美주식 251조 담았다

미국 주식 보관액 사상 최대 기록
기술주·지수형 ETF에 투자 집중
‘셀 아메리카’ 우려… 리스크 관리 필요

회사원 이모(43)씨는 코스피가 4700선을 넘은 지난 14일 갖고 있던 국내 주식 중 절반을 팔았다. 주가가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일부를 팔아 수익을 냈다. 이씨는 “코스피가 지금보다 5% 넘게 내려가면 남은 국내 주식도 다 팔 계획”이라며 “그 돈으로 장기 투자 중인 미국 원자력 관련 종목을 좀 더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서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한국 개인투자자의 시선은 여전히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고환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251조2448억원에 달



‘서학개미’가 해외 증시 중 미국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모습.

/메트로경제

한다. 지난해 말 1636억달러(약 241조 1000억원)에서 불과 2주 만에 69억달러(약 10조16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고환율 국면에서도 미국 주식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천피(코스피 5000)’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주 중심의 투자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22년 말 442억달러(약 65조1887억원)에 불과했던

보관액은 2023년 말 680억달러(약 100조2462억원)로 늘었고, 2024년 말에는 1121억달러(약 165조2588억원)로 1년 새 달러 기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투자 대상은 기술주와 지수형 ETF에 집중돼 있다. 보관액 상위 종목에는 지난 16일 기준 테슬라(275.5억달러), 엔비디아(178.5억달러), 알파벳(72.3억달러), 팔란티어(63.1억달러), 애플(42.6억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3억달러로 10위에 위치했다.

ETF 가운데서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39.4억달러), 뱅가드 S&P500 ETF(36.8억달러),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34.1억달러)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고위험 상품으로, 서학개미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쏠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사이트엔베스트먼트의프란체스카 포르나사리 외환 설루션 책임자는 “많은 이들이 주말 사이 일어난 일에 상당히 경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체뱅크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약 8조 달러(약 1경2000조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인공지능(AI) 붐’ 관련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바클레이스는 AI 붐과 관련해 새해 들어 미국 증시 성과가 이미 다른 대부분 국가 증시 성과에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사이에서 미국 관련 위험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장 질서 훼손시 용납 없다”… 리스크 영역 정밀점검

금감원, PER 운용사 CEO 간담회
내부통제·사회적 책임 재차 강조
‘핀셋 검사’로 시장 부담 최소화하고
불법엔 엄정 대응·자율규제는 지원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불법·편법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불러 시장 질서 확립과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본원에서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PEF 산업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PEF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5년은 일부 운용사의 불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부당 행위로 PEF 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해였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2004년 2개에서 2024년

1137개로 늘었고, 출자 약정액도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15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 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긍정적 기능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 기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며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국면에서 PEF의 역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 구조를 통한 단기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퇴직연금 DC·IRP 수익률 1위

원리금비보장 1년 부문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2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DC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 삼성증권은 수익률 21.02%를 기록하면서, DC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 이상 전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IRP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도 IRP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1위(18.68%)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중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높은 잔고성장률 수치를 기록했다. 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ETF 잔고는 2024년말대비 118% 증가해, 3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ETF 투자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퇴직연금 ETF 모으기’ 내에 연금고객 맞춤형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 임원 가족 계좌 살핀다… 내부통제 강화

모든 임원으로 대상 확대

NH투자증권은 20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가족 계좌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금융(IB) 사업부 등이 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

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모든 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태스크포스팀(TFT)이 마련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의 일환이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확대 시행은 주요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부터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관련 법적·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을 경영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부통제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